2020년 7월호 (제361호)

#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 촌 선 조 정 훈

讀書可以 悅親心 —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독 서 가 이 열 친 심)

勉爾孜孜 惜寸陰 —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면 이 자 자 석 촌 음)

老矣無能 徒自悔 —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노 의 무 능 도 자 회)

頭邊歲月 苦駸駸 —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두 변 세 월 고 침 침)

遺子滿籯金 —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유 자 만 영 금)

不如敎一經 —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불 여 교 일 경)

此言雖淡薄 —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차 언 수 담 박)

爲爾告丁寧 —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위 이 고 정 녕)

## 2020년도 둔촌선조님 생신제 축소시행

대종회에서는 693주년을 맞이하는 둔촌선조님 생신제를 성대히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당초 5월 30일로 계획했던 행사를 7월 11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 국면에 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어 성남시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한 결과, 불가피한 행사라도 10명 내 · 외로 축소 시행할 것을 권고받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축소 시행하게 되었다.

대종회는 6월 26일(금) 장학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특별장학생 20명을 선정하였으며, 7월 1일에는 대종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로종인 2인, 모범종인 9인, 효열인 11명을 선발 하였다.

본 특별장학생 등에 대한 시상은 둔촌선조님 생신제 시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행사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 각 지파 및 개별 시상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1일 생신제는 대종회 집행부와 각 지파 도유사들만 모시고 제례를 봉행할 계획이다.

### ㅇ 공로종인 : 2명

| 지파명 | 성명 | 항렬 | 연령 | 공 적 내 용 |
|---|---|---|---|---|
| 좌통례공 | 수 가 壽嘉 | 21 | 80 | 2011년부터 10여년간 시조묘소 수호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며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며 묘역 및 재실관리와 각종 행사 등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
| 광릉부원군 | 주 동 柱東 | 24 | 69 |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각급학교 및 단체에 순수 자비로 보급해 왔으며 지역사화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수많은 기관과 언론으로부터 상을 받으며 광주이씨를 대내외에 빛낸 종인임. |

### ㅇ 모범종인 : 9명

| 소속지파 | 성명 | 항열 | 연령 | 공 적 내 용 |
|---|---|---|---|---|
| 사 인 공 | 용술 容述 | 21 | 77 | 선조님께 대한 숭조이념이 투철하고 운곡서원 구기비 경내를 항상 청결히하고 종인들에 귀감이되는 종인임 |
| 광릉부원군 | 용복 容福 | 20 | 73 | 종사에 투철한 봉사와 협력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며 타 소종회에 모범이 되는 종인임 |
| 문 경 공 | 주복 柱福 | 24 | 77 | 오래전부터 안성,음성,이천,장호원,충주지역 200여명의 중부화수회를 조직하고 구계서원 중건에도 큰 공로자임 |
| 광천부원군 | 영재 寧載 | 21 | 90 | 파조님과 6분 선조님의 선영을 천묘하고 2차례 파보 편찬과 도유사로 30여년간 종사를 한 공로 모범종인 |
| 광 원 군 | 용환 容煥 | 20 | 80 | 20여년간 양진재 종회장 등 종회와 광원군 대종회 종사에 참여하며 숭조화목에 열심히 봉사한 모범종인 |
| 〃 | 종학 鍾學 | 22 | 64 | 10여년간 광원군 지종회에서 종사에 참여하며 숭조 화목에 열심으로 노력 봉사함 |
| 좌의정공 | 근찬 劤璨 | 22 | 68 | 숭조정신이 투철하여 한음재실 녹화공사에도 열신했고 족보 편찬에도 참여하여 봉사하는 모범종인임 |
| 좌통례공 | 종영 鍾濚 | 22 | 87 | 청백리 중경공의 18대손으로 쌍호당 종회를 설립하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 재산을 종회에 헌납하는 귀감종인 |
| 목 사 공 | 택호 擇浩 | 21 | 80 | 선조님 숭모정신이 투철하여 20여년간 계원공계 회장을 맡아 종회 화목과 결속을 이루는 모범종인임 |

### ㅇ 2020년도 특별장학생 : 20명

| 지파명 | 성명 | 代 | 父 | 학교 | 지파명 | 성명 | 代 | 父 | 학교 |
|---|---|---|---|---|---|---|---|---|---|
| 사 인 공 | 혜인 惠印 | 21 | 용욱 容旭 | 카톨릭대 3년 | 광 원 군 | 소민 沼旼 | 20 | 형래 炯來 | 연성대 2년 |
| | 민우 民宇 | 22 | 성재 聖載 | 이서중 1년 | 좌의정공 | 예진 禮眞 | 21 | 석준 錫俊 | 고려대 1년 |
| 광릉부원군 | 원희 元熙 | 25 | 주혁 柱爀 | 이화여대 1년 | 참 판 공 | 가은 | 20 | 남수 南洙 | 광주교대 1년 |
| 문 경 공 | 승언 昇彦 | 26 | 희백 熙伯 | 전주비전대 1년 | | 주환 周奐 | 24 | 석호 碩浩 | 조선대 1년 |
| | 수림 洙林 | 23 | 종권 鍾權 | 충북대 1년 | 좌통례공 | 보람 | 23 | 종명 鍾明 | 강화여고 2년 |
| | 찬미 燦美 | 23 | 종필 鍾弼 | 극동대 1년 | 문 숙 공 | 용훈 容勳 | 20 | 벽래 璧來 | 건국대 3년 |
| | 송희 松喜 | 21 | 용락 容洛 | 한양대 3년 | | 진솔 眞率 | 22 | 지재 之載 | 경화여고 3년 |
| 광천부원군 | 종현 鍾賢 | 22 | 충재 忠載 | 숭실대 3년 | | 예지 銳智 | 22 | 순재 淳載 | 이화여대 4년 |
| | 지해 池海 | 23 | 종태 鍾泰 | 삼일상고 3년 | 목 사 공 | 민수 玟洙 | 23 | 종익 鍾翊 | 서강대 3년 |
| 광 원 군 | 지우 枝祐 | 21 | 용철 容澈 | 서울대 2년 | | 강수 剛洙 | 23 | 종호 鍾鎬 | 이매고 3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효열인 : 11명

| 소속지파 | 성명 | 연령 | 구분 | 공 적 내 용 |
|---|---|---|---|---|
| 광릉부원군 | 영재 榮載 | 52 | 효자 | 21대손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3대가 함께살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한 효자임 |
| 〃 | 신명자 平山人 | 65 | 효부 | 둘째 며느리로 94세 노령의 시모님을 모시고 조석으로 간병 봉양하며 화목한 가정을 향위하여 가고 있음 |
| 〃 | 김인숙 金海人 | 65 | 열녀 | 남편이 수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거동이 어려운 중 지극한 정성으로 간병하며 타에 귀감이 되는 열녀임 |
| 문 경 공 | 종웅 鍾雄 | 64 | 효자 | 치매와 전신마비 와병의 96새 부친을 10여년간 집에서 목욕시키며 간병 봉양하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임 |
| 〃 | 지수 志洙 | 55 | 효자 | 94세 고령의 보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타의 귀감이 되며 가족을 화목하게 부양하는 효자임 |
| 〃 | 박수익 密陽人 | 49 | 효부 | 남편의 수입이 없어도 시골에서 병환중인 노 부모님을 지극정성 으로 수발 봉양하며 가사를 꾸려가는 효부임 |
| 광천부원군 | 임정례 平澤人 | 66 | 효부 | 91세로 치매 중환자이신 시부님을 모시고자 오래전에 시골로 내려가 지극정성 봉양하는 효부임 |
| 광 원 군 | 용순 容舜 | 55 | 효자 | 어려운 살림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노모를 수발하여 드리고 지극정성 봉양하는 효자임 |
| 좌의정공 | 김경란 金海人 | 64 | 효부 | 55년전 시집와서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지극정성 봉양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주변에도 열심봉사하는 효부임 |
| 좌통례공 | 건주 虔柱 | 13 | 효자 | 빈한한 가정에서 중병중인 조부모를 지극정성 간병하며 열심히 공부하는중 강원도의회에서 효행상을 받기도 함 |
| 문 숙 공 | 윤재 允載 | 24 | 효자 | 대학을 휴학하며 부모님을 지극정성 봉양하는 효자임 |

# 대종회 새로운 상임집행부 구성

## '선조님 묘소 찾아 고유 성묘'

대종회(도유사 옥재)는 새로운 대종회 상임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상임부도유사에는 용두(20代, 광릉부원군파) 부도유사, 총무유사에는 현 걸재 유사(광원군파)가 유임되었으며,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는 재무유사에 문신(목사공파 22代), 문화유사에는 주병(문경공파 24代) 유사를 선임하였다.

신임 용두 부도유사는 지난 6월10일 대종회 부도유사회의를 통해 호선결과 선출되었으며, 재무 및 문화유사는 지파종회 추천과정을 거쳐 7월 1일부로 선임된 것이다.

옥재 도유사를 비롯한 상임집행부는 6월 29일 영천 시조(諱 唐)님을 시작으로 7월 2일에는 하남, 성남, 여주 등에 모셔진 선조님 묘소를 찾아 고유 성묘를 다녀왔다.

### 대종회 신임집행부

옥재 도유사(유)

용두 부도유사(신)

걸재 총무유사(유)

문신 재무유사(신)

주병 문화유사(신)

# 대종회 부도유사회의 개최

## "대종회 상임부도유사에 용두 부도유사 선출"

대종회는 지난 6월10일(수) 부도유사 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대종회 상임부도유사에 광릉부원군파 용두 부도유사를 선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종회 부도유사 12명 중 11명이 참석, 성원이 된 가운데 국민의례와 도유사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신임 부도유사 선출을 위한 현 석연 상임부도유사와 용두 부도유사에 대한 경선이 이루어져 후보자별 소신발표가 있은 후 절차에 의한 호선 결과 신임 대종회 상임부도유사에 용두(容頭) 부도유사가 선출된 것이다.

신임 용두 부도유사는 광릉부원군파 총무유사와 대종회 부도유사를 역임한바 있다.

# 지파종회 소식

## 사인공파종회

### ■ 사인공파종회 대의원 정기총회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을 보내고 희망찬 경자년을 맞이했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전 세계가 감염의 불안과 예방 활동의 어려움 속에 사인공파종회(도유사 容均)에서는 매년 2월 말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정부 시책에 따라 연기하였으나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어 3개월을 훌쩍 넘겨 불가피하게 지난 6월 13일(토)에 창녕군 창녕읍 당산길 운곡재 3층 회의실에서 사인공파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용화 총무유사의 사회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도유사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어 2019년도 결산내역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용균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종인들에게 "숭조와 효행으로 화합하는 종회가 되자"고 말하며 종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회관1층 옥천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화합과 돈목을 다지며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어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인공파종회 총무유사 용화 記–

## 관찰사공종회

### ■ 신임 집행부 선조님묘소 찾아 고유제 봉행

6월 12일(금요일) 오전에 관찰사공종회 신임 효석 도유사, 재석 참판공 도유사, 신임 택수 좌통례공파 도유사, 수재 관찰사공종회 감사, 용권(참판공파) 총무, 용주(좌통례공파) 총무, 진호(관찰사공종회) 재무, 그리고 승기 관찰사공종회 총무 이상 8명이 주과포를 준비하고 성남에 모셔져 계신 둔촌 선조님 및 청백리공(휘 지직)선조님, 관찰사공(휘 예손) 선조님 참판공(휘 극기)선조님, 예판공(휘 영현 )선조님 묘소를 찾아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과 임기 동안 종회 일을 맡게 되었음을 고하는 고유제를 올렸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선조님들의 덕업을 기리고 투명한 종재 관리를 통하여 종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다짐하였다.

### ■ 관찰사공종회 도유사 이 • 취임식

6월 16일(화요일) 종회 고문. 2개 지파종회(참판공파, 좌통례공파) 도유사 등 2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관찰사공종회 도유사 이 •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종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전임 선래 도유사, 호순 총무유사, 그리고 30여 년간 관찰사공종회 감사역을 맡아 오신 성흔 감사께 감사의 뜻으로 행운의 열쇠가 전달되었다. 관찰사공종회의 새로운 집행부는 도유사에 효석, 감사는 용식 · 수재, 총무유사 승기, 재무유사 진호 현종이 선임되어 앞으로 효석 도유사를 중심으로 참판공파종회, 좌통례공파종회와 더불어 화합하고 발전하는 종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유사 승기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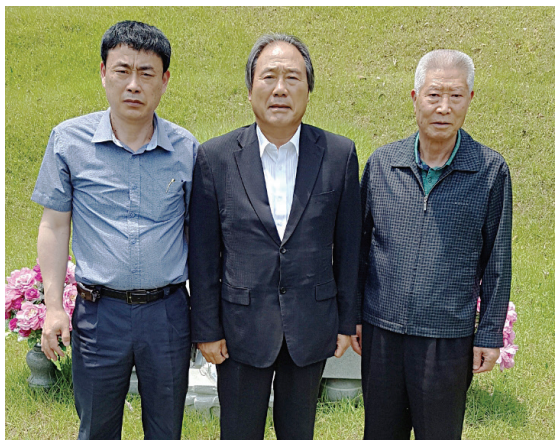
## 광릉부원군파종회

### ■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애국지사 묘역 참배

####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1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세분의 애국지사님을 찾아 분향 헌화하였다.

이날 참배에는 종회 집행부와 종길 화수회장, 대종회 용두 상임부도유사, 그리고 대전 해주목사공종회에서 참석하였으며, 이곳 현충원의 애국지사 1묘역에는 단암 이용태 선생, 여산 이용준 선생 형제 분이 모셔져 있으며, 애국지사 2묘역에는 동초 이종건 선생이 모셔져 계신다. 이밖에도 종회 고문이셨던 용진님 묘소에도 들려 고인을 추모하였다. 참배를 마친 일행은 해주목사공 종회 용복 총무의 안내로 목사공(휘 만형) 선조님 묘소를 찾아 참배를 드리고 대화의 자리를 가진 후 상경하였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용두(容頭) 현종 대종회 상임 부도유사에 당선

광릉부원군파종회 용두 현종(대종회 부도유사)이 대종회 상임부도유사에 선임되었다. 용두 부도유사는 6월 10일 대종회 부도유사회의에서 호선(互選)결과 상임부도유사로 당선된 것이다.

용두 부도유사는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유사와 대종회 부도유사를 역임하였으며, 충희공종회 부도유사로 봉사해 왔다.

앞으로 대종회 상임부도유사로써 선조님에 대한 숭조와 지파간 화목 등 모든 종사에 솔선수범하여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유사 문수 記–

## ■ 장례원 판결사 (휘 시무)公 추모제 봉행

광릉부원군파 도승지공계 종회에서는 6월 30일 판결사공(휘 시무)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날씨 관계로 재실에서 봉수 도유사 대행을 비롯한 종회 집행부, 그리고 화수회 종길 회장. 종봉 총무, 충희공종회 무환 재무, 축관으로 만재(萬載) 부재학공계 안성종회 총무가 참석하였다.

공께서는 임진란 시 16명의 왜병들이 판결사공의 목에 창을 들이대며 항복을 하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판결사공께서는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조선의 대신으로 섬나라 왜놈들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음만 못하다" 하시며 호통치셨다. 공께서는 1491년 5월 11일 왜병들에 의해서 순절하셨고, 이를 막으려던 둘째 아들 정견도 창에 찔려 창독으로 사망했으며, 이밖에도 부인 전주이씨를 비롯한 며느리 등 3명이 왜병들을 피해 한강에 모두 투신하셨다. 이처럼 일가족 모두가 하루에 일문육상(一門六喪)을 당하는 참극을 빚었으며, 한 집안에서 충신과 열녀 열부가 나왔다. 나라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해 정문(旌門)을 내렸으나 6,25 동란 시 안타깝게도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記 –

# 좌의정공파종회

## ■ 2/4분기 정기임원회의 개최

본 종회(도유사 근열)는 6월15일 11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무실에서 정기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연임된 집행부의 인사와 종회 주요 안건인 족보 출판계약에 대한 일정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우리 지파종회는 1959년 기해보(己亥譜)와 1981년 신유보(辛酉譜)를 발간해온바 있다. 족보는 통상 30~50년 주기로 발간하여 그 집안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보규(譜規)로 우리 종회도 39년이 경과되어 제작할 시기가 도래(到來)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 6월 중 출판계약과 7월 말까지 수단을 마감하고 3차에 걸친 교정작업을 한 후 2020년 말까지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교정작업이 시작되면 추가할 수 없으므로 누락되어 조상을 잃어버리고 향후 대종회나 본문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손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일가분들과 상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수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회의를 마친 후 1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점심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 좌의정공파종회 총무유사 시하 記 –

# 목사공파종회

## ■ 목사공파종회 2020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목사공파종회는 6월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2020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재적 대의원 23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 심의에서 계획되지 않은 예산 지출에 대한 예산 심의절차와 예비비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0년도 세입. 세출(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또한 목사공파종회의 오래된 내부 갈등의 근원인 위토에 대한 협상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도출된 협상안을 만장일치로 결의 하였다. 목사공파종회는 지난 80년대부터 위토관련 갈등이 종원 화합과 종회발전을 가로 막았는데 지난해 신임 春臣 도유사 취임과 함께 위토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제안하며 협상을 진행 해왔다. 협상 진행 결과 광주 右尹公계 鍾華회장, 강원도 橫城縣監公계 鍾翊회장 충청북도 報恩계 文臣회장 등 소계파 회장단과 春臣 도유사가 협상(안)을 도출하여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였는데 이 협상안을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 하였다.

## ■ 목사공 묘역 정비작업 실시

목사공파종회는 6월 14일 목사공 묘역에 대한 1차 성묘를 실시(사진)하였다. 1차로 묘역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가을에 시제를 준비하는 성묘작업을 진행하였다. 목사공 묘역은 현재 정부의 3기 교산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묘역만 제외하고 재실 등 이 신도시 조성사업에 수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회는 향후 목사공 묘역의 재실 조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체 종인들과 숙고해야 할 현실이다.

–목사공파종회 부도유사 종익 記–

# 광주이씨에 대한 연산군(燕山君)의 악행(惡行)

광이(廣李) 족보 서문에 보면 「성종조(成宗朝)에 8극조정(八克朝廷)이라 일컬을 정도로 종반 숙질 등 일문(一門)에서 모두 20여인이 등청 입·퇴궐할 정도로 광주이씨의 성세가 가히 따를만한 문세(門勢)가 없었다.

그러나 이 화려했던 지세(之勢)가 간·흉배들의 시기 대상이 되어 모략·중상 등으로 처참한 화난을 당하였다. 특히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잊을 수 없는 뼈저린 사화(士禍)를 당하였다. 바로 연산10년(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화(甲子士禍)이다.」라 기록되어있다.

이에 후손으로 당시 우리 선조들께서 어떤 참혹한 일이 있었는가를 상기해 보고자 한다.

연산군(燕山君)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는 폐출되었다가 성종13년(1482년)에 사사(賜死)되었다.

연산군이 당시 대신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에 부응하여 간신 임사홍(任士洪)과 유자광(柳子光) 등이, 연산군을 충동하여 시작된 것이 갑자사화로, 예조판서 이세좌(世佐: 광양군)가 연산9년(1503년) 인정전(仁政殿)에서 열린 양로연(養老宴)에 참석, 어사주(御史酒: 임금이 주는 술)를 회배(回盃; 잔을 돌림)할 때, 어의(御衣: 임금의 옷)에 술을 엎지른 실수로 연산군의 분노를 사게 되며, 경기관찰시 홍귀달(洪貴達)이 간택령에 이를 거부하면서 손녀를 들여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걸 본 연산군은 분노하여 이를 빌미(핑계)로 갑자사화를 주도하게 된다.

광양군께서(이하 선조님들 존칭 생략) 일찍이 성종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릴 때, 형방승지로서 약사발을 가지고 간 악연(惡緣)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양로연을 파한 뒤 세좌가 자랑삼아 말하기를, 「'내가 평시 술을 못 마셨는데, 오늘은 회배를 다 마셨다.'」고 하므로 그 말을 듣고 참석자들이 웃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연산이 자신의 생모인 폐비 윤씨를 폐위할 때 극간(極諫)하지 않았고, 사약을 내릴 때 형방승지로 약사발을 가지고 간 세좌를 죄주기 위해 일을 꾸며낸 것으로, 세좌는 거제도(巨濟島)로 귀양 가는 도중 경남 곤양(昆陽郡: 사천泗川) 양포역(良浦驛)에서 자살의 명을 받고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되며(1504년 4월4일), 아우와 아들 4형제 큰형 극배(克培)의 아들 세광(世匡)과 손자 수공(守恭), 삼촌인 좌의정 극균(克均) 등 친족 10여인이 죽음을 당하고, 3당척 간(3堂戚 間) 203인이 유배 등 화난을 당하게 된다.

좌의정공 극균께서는 세자부(世子傅)를 지내고, 성종의 고명(顧命)을 받은 대신으로서 연산군이 독선적인 행보로 일관하며 사치와 방탕 등을 일삼고, 행하는 일이 많이 착하지 못함을 보고 시폐십조(時弊十條)를 올리는 등, 말로 글로 정치를 바로 잡으려 하였다.

이에 연산군 일지(日誌)에 의하면 「'근래 이극균, 이세좌 등 종족이 매우 번성한 데다 권력 있는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 장차 세력이 강해져서 제거하기 힘들며, 이것이 만연되면 춘추에 이른바 신하가 왕을 죽이는 때와 같이 안 된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광주이씨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연산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산10년(1504년) 4월 1일 극균은 조카 세좌가 경로연에서의 죄와, 노공필(盧公弼)· 김응기(金應箕) 등의 죄를 율문(律文)을 들어 아뢴 죄로, 인동(仁同: 현 경북 구미시 인동중학교 부근)으로 유배(流配)되었다,

윤4월13일 「'극균의 아들·사위를 모두 장 1백에 처하여 먼 변방으로 분배하도록 하였으며, 극균과 혼인한 집을 아뢰어 관직에 못나가게 하고, 친족을 모두 난신(亂臣)의 예(例)에 의하게 하였고, 극균·세좌의 아들과 사위를 울타리 쳐서 감시하되, 수령(守令)으로 수시 검찰, 곤고(困苦)하게 하여서 그들이 죄가 있음을 알게 하라.'」하였다.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순(金永純)을 보내서 인동(仁同)으로 가서 윤4월15일 사사(賜死)하려 할 때, 죄명전지를 내어주니, 극균이 꿇어앉아 읽기를 마치고, 신(臣)에게 말하기를 「"국가에서 신(臣)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냐?"」하더니, 노(怒)하여 말하길,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와 같이 하는가!"」하며, 곧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모시 폭으로 목을 매고, 사람을 시켜 벽을 뚫고 밖에서 당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막 당기려하는데, 극균이 분기(憤氣)가 치솟아 유실(幽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말하길, 「"신의 나이 70이 다 되고, 몸에 병이 쌓였으니, 죽어도 다른 생각이 없겠습니다. 만, 신이 소시부터 변방에서 일하였으며, 나랏일에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진심으로 갈력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한 가지 죄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주상(主上)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하면 내 혼(魂)이 있어 너희들을 벌주리라!"」하고 곧 목매어 죽었습니다.'」하였다.

윤4월18일 의금부 경력 김영순이 극균에게 죽음을 내리고 돌아와 이와 같이 아뢰니, 이를 듣고 연산은

윤4월19일 병조(兵曹)에서 서계한 극균의 동성(同姓)·이성(異姓) 팔촌, 친족 및 그를 찾아본 무사들을 변방 고을에 나누어 보내고, 위의 사람들을 병조로 불러서 「'너희들의 죄가 아니고, 그 뿌리와 그루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이다.'」고 말하라 하였다.

윤4월20일 「'극균은 죽으면서 "무죄다"고 하였다 하니, 이것은 모두가 성내어서 하는 말이다. 신하된 도리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부와 한성부(漢城府)·육조(六曹)를 불러 다시 그 죄를 여러 사람의 의논에 의하여, 참시(斬屍)하라.'」하였다.

윤4월21일 「'극균이 살아서는 인군(人君)을 업신여기고 죽을 때는 분(憤)을 내었으니, 어찌 신하의 예(禮)이겠는가? 나는 그 시신을 사방으로 돌려서, 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할 줄 알게 하려 한다. 극균이 살아서는 교만하여 위를 업신여기고, 죽으면서는 분하여 독을 내었으니 이것은 천지간에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세좌도 죽을 때에 역시 노복(奴僕)에게 성내었으니 또한 시신을 베어, 함께 사방으로 돌려서 경계시키게 하라. 대신의 머리라도 어찌 돌려 보이지 못할 것이랴? 무릇 신하로서 이러한 자는 닭이나 개로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설원(雪冤)하는 일을 아직도 다 하지 못하였다. 세좌도 능지(凌遲) 하여 시체를 돌리게 하라.'」하였다.

윤4월22일 「'극균의 집에 드나드는 자를 모두 형장 때려 파직하라.'」하였다. 윤4월23일 극균에게 명함을 드린 자를, 모두 장 80에 처하게 하였다.

윤4월26일 극균의 머리를 저자에 매달고, 3일 후에 팔방으로 돌려 보게 하였다.

윤4월27일 세걸(世傑: 문경공의 3남) 등이 난언한 추안(推案)을 불태우게 하였다.

윤4월28일 극균의 머리를 백관(百官)이 배제(陪祭: 임금을 모시고 제사 지냄)한 후, 차례로 보이게 하고, 이어 팔도(八道)에 돌리게 하였다.

5월2일 의금부가 아뢰기를, 「'세좌의 머리와 사지(四肢)를 모두 베어 왔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머리를 매달되 찌를 써 붙이라.'」하였다.

5월4일 「'세좌의 죄는 난신(亂臣)이나 다름이 없다. 그 아들 수형(守亨: 2남) 등 4인의 처소에 각각 낭청을 보내어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하게 하고, 급제한 세걸(世傑: 3남)을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라.'」하였다.

5월 9일 세걸과 이름자가 같은 사간(司諫) 이충걸(李忠傑)을 충순(忠純)으로 개명시키고 동부승지로 임명하였다

5월10일 해주목사(海州牧使) 이윤검(李允儉)을 극균에게 명함 드린 죄로, 장 60을 때리고 고신(告身) 3등을 빼앗았으며, 「'이극돈 같은 자는 무오년의 일이 매우 그르니, 극돈·극감은 공신 명부에서 삭제하고 노비·전토까지 거두고, 극증·극배도 노비·전토를 거두게 하라.'」하였다.

5월13일 「'수원(守元)과 수형(守亨)·수의(守義)·수정(守貞)은 아비(세좌)의 세력을 믿고 교만방종하였으니,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3일 간 효수(梟首)한 뒤에 시체를 돌리도록 하라. 또 형벌할 때에 백관을 차례로 서서 보게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수원 등을 군기시 앞에서 베었는데, 왕이 찌를 써서 달기를 「'자리 잡은 세력을 믿고 위를 업신여기며 조정을 능멸한 죄이니, 이런 사람은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고 하게 하였다.

수형 · 수의 · 수정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죄 아닌 일로 함께 저자에서 참형당하니, 통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극균의 서자 연명(延命)을 군기시 앞에서 목을 베이되, 찌를 써서 달기를 「'그 아비로 하여 자리 잡은 세력을 믿고 무사를 많이 모아 군상(君上)에게 오만한 죄'」라 하라 하였다.

5월15일 극균이 정부에 있을 때 반드시 세우고 경장(更張)한 법이 많았을 것이요, 또 변방에 출입이 많았으므로 무사에게 편하게 하려 하여 그들이 아뢰어 세운 법이 더욱 많았으리라 생각되니, 지금 사관의 기록을 상고하여 다 삭제해 버리게 하고, 극균의 족친으로서 연좌되어야 할 사람은 모두 형장 때려 배소를 분정하고, 그 중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직첩을 거두고, 족친으로 관직에 있는 자를 파직시키게 하였다.

5월16일 「'세걸을 백관이 차례로 서서 보게 하여 머리를 매달고 시체를 돌리라.'」하였는데, 드디어 세걸을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베었다.

5월17일 「'극균 · 세좌 족친에 연좌된 자는 모두 장 60을 때리되, 장(杖) 잡을 옥졸도 함께 써서 아뢰라. 그리고 이미 배소(配所)에 간 자는 낭청(郎廳)을 보내어 그 도(道) 감사와 함께 감독하여 장 때리게 하라.'」하였다.

5월20일 극균 등이 바친 문부(文簿)를 조사하게 하다.

「'전일 사냥할 때에, 범이 마침 포위 속으로 들어오므로 한창 모두 잡으려 하는데, 극균이 사람을 상할까 염려된다고 아뢰어 중지시켰다. 대저 사냥하는 것은 맹수를 사냥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뢰었으니 역시 그르다. 만일 그 일을 전파한 사람이 아직 있는데도 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되겠느냐. 마부(馬簿)를 상고하여도 말 바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사사 종이더라도 그 주인을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니, 그 흠집을 꼬치꼬치 캐내서 죄주어야 한다. 말을 바친 사람 및 위의 말을 일찍이 빌려 탄 자들을 가두고, 아울러 추국(推鞫) 형신(刑訊)하라.'」하였다.

5월23일 「'극균 · 세좌의 족친을 고생하게 하여 그 후손을 징계하여야 하는데, 소재지의 수령들이 국법을 받들지 않고 사정에 따라 비호하는 자 있을까 염려되니, 각각 소재지에서 일 시키고 엄하게 규찰 단속하되,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가 감사에게까지 미치게 하라.'」하였다.

5월27일 「'극균 · 세좌의 집에 왕래하며 간알(干謁)한 별감의 각 소임과 악공(樂工)을 고찰하여 아뢰라. 또 무릇 거둥할 때에, 조사(朝士)가 혹 음료[水漿]를 별감의 각 소임들에게 달라고 하여 마신 사람들이, 그로 인연하여 서로 왕래하는 것을 일체 금하라.'」하였다.

5월29일 극균이 전에 경연(經筵)에서 말하기를 「'위의 처사가 사람을 감복시켜야만 아랫사람들이 감복한다(上之處事 可以服人然後 在下之人乃服)고 하였는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인군(人君)이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극균은 이미 베었지만 그 족친 중에 연좌되는 자는 형장 1백을 때리고, 정배할 자는 형장 80을 때리라.'」하였다.

6월 2일 「'수공(守恭: 극배장남 세충의 2남)은 일찍이 무오년(무오사화)에 중죄를 지었으며, 그 사람됨이 재주를 믿고 마음 씀이 바르지 않으니, 죄를 결단하여 멀리 귀양 보내라'」하였다.

6월 3일 이극균의 족친을 벌주는데 이충순에게 감시토록 하다

「'너를 특배(特拜) 하여 승지로 삼았고, 또 네 이름도 고쳤으니, 죽도록 충성하여야 하려니와, 또한 오늘 결장(決杖)을 감시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살펴서 내 뜻에 맞추라.'」하였다.

6월14일 「'극균은 이미 변변치 못하다고 여겨서 제거되었으니, 그가 아뢰어서 세운 법도 쓰지 말아야 한다. 또 내수사(內需司)의 노비(奴婢)는 진고(陳告)하지 못한다는 법도 극균이 세운 것이니 상고하여 제거하라.'」며, 극균이 세운 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6월20일 극균 집은 못을 만들고 죄명를 써 알리게 하고, 「'이극균이 전일 경연(經筵)에서 "일이 복종할 만하면 사람들은 복종한다(事若可服 則人乃服之)."하였거늘, 그 뜻이 아마도 임금의 잘못을 가리켜 다른 뜻을 품고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하였으리니, 기록[史]을 상고하여 아뢰라. 또 극균 집은 못[池]을 만들고 돌을 세워 죄명을 써서 만세(萬世)의 인신(人臣)으로 하여금 징계를 알게 하라.'」하였으며, 「'마음대로 생각하고 위를 업신여겨서 능지처참(凌遲處斬)한 자를 서계(書啓)하라. 또 죄인의 관을 뼈갠 곳에도 돌을 세우고 죄명(罪名)을 써서 사람들에게 그 죄악을 알게 하라. 이에 앞서 죄를 범한 자는 혹 삼족(三族)을 멸하였으되 저가(瀦家)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돌을 세워 죄악을 적은 자는 한때 한 짓이 그러하였다. 세좌 같은 무리는 본디 매우 다스려야 하니, 그 연좌(緣坐)된 사람의 집을 모조리 헐라.'」하였다.

6월22일 「'수함(守諴: 극배차남, 세필의 2남) · 극견(克堅: 좌통례) 및 어제 아뢴 연좌된 사람의 집을 모조리 팔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6월25일 「'극균의 뼈를 묻은 곳에는 돌을 세워 죄명을 새기고, 또 몰래 이장(移葬)하여 묻을 염려가 있으니 돌 세운 곳에 산형(山形) · 도로 및 아무 고을과 서로 떨어진 이수(里數)를 아울러 새기라.'」하였다.

6월26일 극균 · 세좌의 죄명문(罪名文)

김감(金勘) · 임사홍 · 강혼(姜渾) 등에게 명하여 극균 등의 죄명문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극균은 삼공(三公)인 중신(重臣)으로서 충신(忠藎)을 다하기에 힘써서 왕실(王室)을 도와야 하거늘, 감히 염세(焰勢)를 고취 선동하고 남몰래 은위(恩威)를 팔아서 무사(武士)와 서로 맺어 거마(車馬)가 문 앞을 채우며, 군상(君上)을 업신여겨 주대(奏對)가 공손하지 못하며, 국시(國是)를 버리고 사친(私親)을 따라 세좌의 불경(不敬)한 죄를 넌지시 감싸니, 발호(跋扈)의 뜻이 이미 뚜렷하고 무장(無將: 장차 받들어 행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뜻)의 마음이 이에 있으되,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거늘, 감히 분한 말을 내어 원망을 위에 돌리니 신하의 죄가 어느 것인들 이보다 크랴. 이에 명하여 능지(凌遲)에 처하여 거리에 효수(梟首)하고, 그 재산을 적몰(籍沒)하고 그 자식을 주멸(誅滅)하고 그 족당(族黨)을 나누어 귀양 보내게 하며, 또 그 집을 저택(瀦澤)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신하로서 불충(不忠)한 자로 하여금 징계를 아는 바가 있게 하노라.'」

「'세좌는 임인년: 1482년 성종 13년. 폐비 윤씨(尹氏)를 사사(賜死)한 해)에 승지(承旨)로 정원(政院)에 있어 마침 궁위(宮闈)의 큰 변을 당하였으니, 제 몸을 잊고 힘써 간쟁(諫諍)하여 그 화난(禍難)을 늦추어야 하거늘, 감히 부도(不道)한 말을 내고 독약을 구해 가지고 가서 그 변고에 임하였으니, 이것이 차마 할 일이랴. 화심(禍心)을 싸 감추고 사당(私黨)을 널리 심으며, 자제(子弟)와 종족(宗族)을 조정에 벌려두어 그 근거를 믿고 교오(驕傲)하여 위를 업신여겨, 예연(禮宴)의 사주(賜酒)를 쏟고 마시지 아니하여 튀어 어의(御衣)에 미치니 불경(不敬)이 막대하도다.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그 가산을 적몰하고, 주멸이 그 자식에 미치고 족당을 분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의 신하로서 불충한 자를 경계하노라.'」

6월27일 「'죄인 극균 등의 집은 빨리 저택(瀦澤)하라. 또 경기(京畿)의 군사 5천을 부려서 돌을 세우고, 또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정(差定)하여 해조(該曹)와 함께 감독하게 하라.'」며, 빨리 못으로 만들게 재촉하였다,

「'이세좌 따위 같은 자가 건백(建白)하여 세운 법은 모두 폐지하라.'」하였으며, 「'죄인의 집을 허는 것을 감독하는 데에 3품 당상(堂上) 둘과 2품 당상 하나와 낭청(郎廳)을 많이 차정(差定)하고 청호(廳號)를 따로 칭하라. 또 집터에 땅을 파서 가운데가 섬 모양이 되게 하고 죄명을 돌에 새겨서, 만세의 신하된 자로 하여금 징계를 알게 하라.'」하였다.

6월28일 오부(五部) 및 서울 근교 민간의 군인을 징발하여 죄인의 집에 못을 만들게 하였다.

7월 1일 극균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우게 하고, 이충걸 · 임사홍 · 강혼을 시켜 그 죄상을 글로 지어서 그 돌에 쓰게 하였는데, 못을 파는 일과 죄명을 새기는 일을 위해 척흉청(滌兇廳)을 두어 당상에 이손(李蓀)을 임명하여 그 일을 맡겼다.

7월 4일 극균 · 세좌가 세운 법을 폐지한 일을 살피게 하였다.

7월 6일 극균 · 세좌 등의 자식도 적몰케 하였다.

7월 9일 척흉청 당상 이손 등이 아뢰기를,

「'극균 · 세좌 집은 이제 이미 저택(瀦澤)하였습니다 극균의 집은 정업원동(淨業院洞: 종로구 원서동)에 있으므로 이제 궁장(宮墻) 안에 들 터인데도 돌을 세워야 합니까? 또 돌에 새길 적에 연월일을 써야 할 터인데도 어느 달과 날짜로 쓰리까?'」하니, 전교하기를, 「'그 집을 저택함은 후세로 하여금 죄인의 악명(惡名)을 알게 하고자 함이니, 어찌 반드시 물을 괴여야 하랴. 몸 하나 길이로 파도록 하라. 연월일은 반드시 낱낱이 쓸 것 없이 해를 쓰고 철[時]을 쓰고 달(月)을 써서 '아무 해 여름달 또

는 가을달[某年夏,月秋月]'이라 하여 돌을 세우면 되리라.'」하였다.

8월30일 극균 등이 세운 과조(科條)를 모두 의논하여 없애도록 하였다,

9월 4일 극균의 당질 세정(世貞: 극돈 3남) · 세홍(世弘: 극증 장남)과 종손(수겸 守謙: 극배 장손) · 수훈(守薰: 극돈 차남, 세경의 자) · 수간(守幹: 극돈 장남, 세전의, 2남) · 수위(守葳: 극돈 장남, 세전의 3남) · 수건(守謇: 극배 3남, 세광의 장남) · 수공 · 수함 등을 서계(書啓)하기를, 「'간알(干謁)한 자는 모두 무인(武人)이니 의심할 것이 없고, 그 족친 중에 미열(迷劣)하고 연소한 자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문자를 아는 자는 이들이고, 급제한 자는 수공과 세정뿐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을 모두 잡아다가 형신(刑訊)하라.'」하였다.

10월 3일 극균 등에게 가 본 자는 자수시켜 치부케 하였다.

10월14일 「'극균을 난신(亂臣)으로 논하였으니, 그 아들(세준)도 또한 당연히 부관참시(剖棺斬屍)해야 한다.'」하였다.

10월22일 「'이극배 · 극증 · 극감 · 극돈 · 극균 등의 자자손손(子子孫孫)은 모두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하였으며, 「'극균이 폐단을 아뢰는 상소를 할 때 서울에 있던 족친(族親)은 빠짐없이 서계(書啓)하고 고문하라.'」하였다.

10월23일 극균 등의 족친 등을 국문하게 하였다.

10월24일 극균이 천거하였다 하여 천거인들을 잡아다 고문하게 하였다,

11월11일 극균의 「'아비 · 형제를 부관참시하고, 그 부모의 직첩을 모두 회수하라.'」하였다.

11월18일 극균이 추천한 이윤종(李胤宗)을 잡아다 국문하게 하고, 〈시경 詩經〉 귀절을 들어 세좌의 죄를 논하고, 오언절구를 지어 올리게 하였으며, 익명 투서를 의심하여 세좌의 손자로 부마가 된 집의 종들을 모두 고문하게 하였다.

11월21일 극균 · 세좌의 처족을 장죄(杖罪)에 처하여 출송(出送)하였다.

11월24일 세좌가 예조판서로 있을 때 뽑았던 방(榜)을 혁파하게 하였다.

11월24일 「'문과별시(文科別試)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만약 극균 · 세좌 같은 사람의 족친이 있으면 급속히 고찰하여 아뢰고, 무과(武科)에도 또한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12월 1일 세좌가 인재로 뽑은 문과(文科) 권복(權福)의 방(榜)을 폐기하게 하고.

12월10일 세좌가 예조판서로 있을 때 건의한 별시 문무과의 과방(科榜)을 폐기하도록 하였다.

12월14일 「'극균 · 세좌의 자손과 친애(親愛)하는 자를 모두 찾아서 죄주라.'」하였다.

12월15일 「'극균 · 세좌의 시체를 일찍이 들판에 버려두고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반드시 거두어 매장하였을 터이니, 지금 다시 파내어 간신의 해골을 바람에 날려 천지간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땅에는 영험스러운 풀이 있고 하늘에는 신통한 새가 있어서이니. 죄가 중한 사람은 모두 그 해골을 분쇄하여 바람에 날려 버리게 하라.'」하였다.

연산11년(1505년) 1월26일 「'극균 · 세좌의 뼈를 부순 가루를 강 건너에 날리라.'」하였다.

2월12일 「'극균의 자손에게 죄를 전일에 1백 결장하는 자는 1백을 더하고, 80을 결장하는 자는 80을 더하라.'」하였다.

7월22일 극균 · 세좌의 자손의 뿌리를 캐어서 그 악(惡)을 제거하게 하였다.

9월18일 극균과 동성(同姓)으로 촌외(寸外: 10촌이 넘음)의 족친과 자손은 모두 추쇄(推刷)하여 영구히 부거(赴擧: 과거(科擧)를 보러 감)못하게 하였다.

9월19일 극균의 친족을 부관 참시하게 하였다.

「'할아비 및 아재비 · 조카는 비록 죽었더라도 모두 부관참시 하라! 이 일은 율문(律文)에 없는 것인 듯하지만, 율문이 없는 것은 이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상(非常)한 간흉(奸兇)은 상법(常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므로 율문에 없는 형벌로 다스린다.'」하였다.

9월19일 「'극균 · 세좌와 같은 중죄(重罪)를 받은 간신은 촌외(寸外)를 물론하고 모두 해외(海外)로 귀양 보내되, 그중에 유생(儒生)이 있거든 익명서를 던졌는지 여부를 형신(刑訊)한 다음에 보내라.'」하였다.

9월24일 「'내자시(內資寺: 왕실에서 소용되는 각종 물자를 관장하던 호조 소속의 관청)에 붙인 죄인 수정(守貞)의 아내 가이(加伊)를 장 숙용(張淑容)의 집에 내리라.'」하였다.

10월 1일 「'세좌의 죄는 간흉의 괴수로 이름 하라.'」하였다.

10월 2일 「'극균의 외손을 국문하게 하라.'」하였다.

10월 7일 왕이 극균 · 세좌를 추질(追嫉: 죽은 뒤에 미워하는 것)하여 각각 죄명을 달았는데, 세좌는 「'간흉의 괴수로서 임금을 능멸하였다.'(魁兇陵君 괴흉릉군)」하고, 죽은 뒤에도 미워하여 극균은 「'포악하고 간사하여 임금을 능멸하였다.'」(桀黠陵君 걸힐릉군)」라고, 각각 죄명을 달게 하였다.

10월29일 「'극균 등 간신으로 연좌된 자는 으레 이틀에 한 차례씩 형신하고, 대간(臺諫)은 사흘에 한 차례씩 하라.'」하였다.

연산12년(1506년) 1월16일 「'세준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상고하여 아뢰고, 세준의 처는 성질이 사나운 죄인의 아내로서 본역(本役)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사람을 대신 보내서 부역하게 하니, 이것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잡아다가 국문하고, 그 형제나 절친하게 가까이 부쳐 있는 사람 중에서 익명서를 던졌을 듯하니, 아울러 잡아다가 국문하고, 손자도 아울러 국문하게 하라'」하였다.

1월18일 「'세준의 처가 정역(定役)한 후에도 부역(賦役)하는 곳에 있지 않다면, 반드시 줄곧 서울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세 겨린[三切隣: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의 세 집]까지 추국하라. 만약 불복하거든 형신(刑訊)하게 하라.'」하였으며, 세준의 처를 관장하던 관원들을 죄주었다.

1월19일 「'세준의 처를 정역한 후, 조지서(造紙署: 종이 만드는 일을 관리, 담당하였던 관서)에서 그를 관장하던 관원은 장 1백을 쳐서 먼 지방에 정속(定屬)하고, 그 나머지 관원도 차등 있게 죄를 다스리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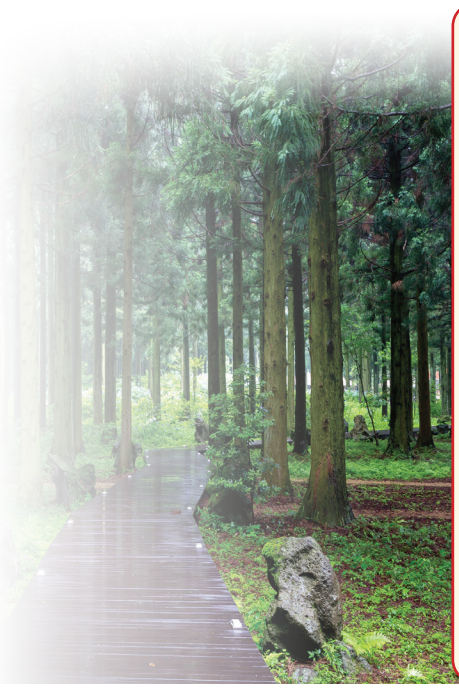
1월20일 「'세준의 처에게 장 80을 쳐서 이 숙원(李淑媛)에게 내리라,'」하였다.

6월 5일 극균 · 세좌의 족친(族親)들을 외방으로 찬축(竄逐: 귀양)하도록 하였다,

6월 7일 「'외손(外孫)을 연좌시키는 법이 비록 율문(律文)에는 없지만, 간신은 마땅히 그 뿌리를 끊어야 할 것이니, 그 외손들을 모두 외방으로 귀양 보내어 조정을 깨끗이 하라.'」하였다,

이렇듯 연산군에게 핍박을 받아 거의 멸족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어온 선대의 처절했던 삶을 후손으로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실록에서 발췌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

–좌의정공파 도유사 근열 書–



## 바르게 고칩니다.

〈제360호〉

- 3면 3단원고 제목 중 : 文景公波 → 文景公派
  4단원고 좌측 하 1행 : (諱 俊慶) → (諱 浚慶)
- 6면 상단 중앙 하 7행 : 택수(澤) → 택수(澤守)
  우측(신임 도유사 소개) : (澤洙) → (澤守)
- 9면 하단 좌측 상 2행 : 래력 → 내력
  중앙 상 5행 : 살았습 다 → 살았습니다
  우측 상 5행 : 30.000 → 30,000
- 11면 하단 "이달의 명심보감" : 한글 토 변환 오류

※ 익지서운/백옥투어니도/불능오예기색/군자행어탁지/불능염란기심/고송백가이내설상/명지가이섭위난

# 삼성그룹과 이창업 선생
## (좌통례공 휘 극견 16대손)

우리나라의 기업체 가운데 최고의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들 두말할 나위 없이 삼성그룹을 꼽을 것이다. 지금의 삼성그룹이 있기까지 이 분이 안 계셨던들 아마도 삼성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거두절미하고 좌통례공의 16대 후손이신 이창업(李昌業)선생에 대한 실화를 담아 볼까 한다. 창업 선생께서는 1911년 9월 8일 경북 칠곡에서 출생하시어 대구상고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수학(受學)하셨다. 이후 이병철(1910년 생) 전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그룹의 발원지는 대구(大丘)의 삼성상회(三星商會)가 본체이다. 1938년 설립 당시 이병철 회장은 큰 포부를 가지고 삼성상회 부설 양조장과 과수원을 창업(昌業) 선생에게 맡기고 상경을 한다. 그리고 1942년 이병철 회장은 조선양조를 인수하고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1947년에는 삼성물산공사를 창설하여 무역업에 진출하였다. 그런데 사세 확장 3년 후 청천벽력 같은 6 · 25가 터진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공사에서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에 타 재만 남았다. 이병철 회장은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동란 시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이병철 회장은 혜화동 모처에서 숨어 지냈다. 그 뒤 서울은 수복되었으나 사업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하는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대구로 내려갔다. 대구에 도착한 이병철 회장은 창업 선생과 양조장에서 해후를 하게 된다. 창업 선생께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내역을 소상히 보고 드리고, 이익금이라고 하시면서 선뜻 거금 3억원을 이병철 회장께 내놓은 것이 아닌가!

당시 3억 원이면 지금의 3천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병철 회장은 한동안 울먹이시더니, 야~ 이 친구야! 이 큰돈을 어떻게 자네가 마련하였는가? 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병철 회장은 창업 선조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신다. 그 후 이병철 회장은 3억원의 종자돈으로 1953년 제일제당을 설립하였고, 1954년에는 제일모직을 설립하여 제조업에 투자하였다. 그 뒤 사업이 날로 승승장구 하자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을 창설하고, 이후 안국화재보험, 전주제지. 신세계 백화점 성균관 대학교를 창설 및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창업 선생께서는 삼성그룹 재직 중 삼성물산 회장, 제일모직, 제일제당 회장, 동방생명(현 삼성생명) 초대회장, 신세계 백화점 회장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회장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창업 선생께서는 강직하고 정직하신 분으로 맡은 직무에 충실하셔서 전쟁 중에도 사업장을 꿋꿋하게 지키시고 단돈 1원이라도 속이는 법이 없으셨다. 창업 선생께서 양조장과 과수원을 경영하실 때 주위에서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한다. 여느 사람이라면 당시 전쟁 중에 사욕을 채우련만 선생께서는 단돈 1원도 부정이 없으셨으니, 그의 정직함이 오늘날 삼성그룹을 탄생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창업 선생께서는 동란 이후에도 실력이 출중하셔서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회계를 가르치시며 공무(公務)에도 봉사를 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이 넘치셔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월급은 물론 사비까지 털어서 학비를 대주시곤 하였다.

일화(逸話)를 소개해 본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창업 선생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퇴직금을 안주셨다고 한다. 자네는 퇴직금을 주면 2~3일 내로 없앨 사람이니, 자네가 이 세상을 뜰 때까지, 연금으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셨다. 뿐만 아니라. 평소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도 친분이 두터우셔서, 정주영 회장을 만나시면, 직원들에게 복지를 후하게 해주라고 하시며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한다. 오늘날 창업 선생의 도덕성과 강직함이 없었던들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은 항상 이 일을 잊지 않고 고마워해야 한다며 선생에 대한 애정을 각별히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한편 이병철 회장께서는 창업 선생 퇴직 후에도 늘 곁에 모시고 평생 우애를 나누시었다.

### ■ 광릉부원군파 종회 창업 선조님의 도움을 받다

필자는 광릉부원군의 종손가이다. 지난날 대부분의 종회는 거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유독 광릉부원군파 종회는 재정이 빈약하였다. 광릉부원군 파조님 세일사(음 10월 12일)가 도래되면 가진 게 없어 늘 걱정이 태산 같았다. 제관들이 필자의 집에 오시면 보통 2~3일을 묵었다 가신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10여 명이 넘는 참사 종인들을 3일동안 하루 3끼 대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 당시 종토라고 해봐야 임야가 대부분이었고 농사를 지을 땅은 논, 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다.

마지못해 희재(전 광릉부원군파 도유사)씨와 필자의 조부(英載)께서 창업 선생을 찾아가기로 한다. 당시 두 분께서 창업 선생을 찾아뵙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드리기를 "광릉부원군 파조님께 제사를 올려야 하는데 종재가 녹록치 못하여 조상님 뵈옵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창업 선조님께서는 기꺼이 능력껏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답을 주셨다고 한다. 이후 영재 조부께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337-1. 2번지 약 1,500평을 말씀드리자 창업 선생께서는 종토와 송아지 한 마리를 사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 선생께서는 생각이 얼마나 깊고 깊으신 분이신가!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나 하시면서 송아지를 길러서 황소로 키워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시었단다. 토지 명의는 필자의 조부명의로 하라고 하시는데 종회에서 거절하고 창업 선생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저 감사할 따름이다. 여기에서 작농하여 종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종가(宗家)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정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동구 명일동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창업 선생께서는 가끔 필자의 집을 방문하셔서 지난날을 회고하시며 자상하게 실화를 나에게 들려주셨다. 또한 우리집에 오시면 저의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나를 부르셨다. 그때마다 나는 반드시 큰절을 드려야 했다. 당시 나는 외가도 경상남도인데 절하기 싫어서 외가에 가는 것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었다. 잊지 못할 일화를 한 구절 소개한다. 창업 선생께서는 당시 자택이 압구정동이었다. 하루는 필자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는 자가용이 흔치 않은 시절이었다. 창업 선생께서 가실 무렵 자택에 모셔드리려고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평소 자상하시며 온화하신 분께서는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단을 치신다. 나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였다. "늙은이가 시간도 많은데 무슨 택시를 타냐, 택시는 젊은 사람이 타야지, 할 일 없는 늙은이가 뭐가 바쁘다고 택시를 부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해석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라는 뜻과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는 배려의 말씀이셨다.

오늘날 공룡기업 삼성 그룹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三星)의 정신이다. 광릉부원군께서는 겸공(謙恭 겸손하고 공손함)을 유훈으로 남기셨다면 창업 선생께서는 강직과 정직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평소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

광이회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흥미 있는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미담(美談)이 세월 속에 묻혀버릴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적어본다. 또한 늦었지만 이 기회에 지면을 빌려 좌통례공(휘 극견) 후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창업 선생의 세계]

둔촌 -지직 -예손 -극견 -지 -덕부 -준경 -희복 -윤우 -도장(道章) -원호 -하명 -세진 -흠중 -동형 -택운 -이규 -익연 -상태 -창업(昌業)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 문수 書-

# 생활 속 위계질서의 기본

## 1. 가정생활에서의 위계질서

한 가정의 구성요소인 가족 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세대차(世代差)의 위계(位階)와, 형과 아우의 관계에서 오는 출생의 선후차(先後差)에 의한 위계가 있다. 부모와 같은 세대는 윗세대이고, 형제자매(兄弟姉妹)는 같은 세대, 자녀들 같은 세대는 아랫세대이다.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사랑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효(孝)로써 모시는데, 이것을 부자자효(父慈子孝)라 한다. 또한 형우제공(兄友弟恭)이라 하여 형은 동생과 우애(友愛)로 친구를 대하듯이 하고, 동생은 형에게 깍듯이 공순(恭順)하는 것을 말한다. 친형제나 친남매 또는 친자매 간이라도 동생과의 연령차이가 10년 이내에 들면, 친구같이 여겨 절(拜禮)을 할 때에도 답배(答拜)하며, 말씨도 낮춤 말씨인 '해라'를 쓰지 않고, 보통말씨인 '하게'를 쓰게 되고, 동생은 윗사람이 생일만 앞서더라도 깍듯이 존대해 따르는 것이다

## 2. 사회생활에서의 위계질서

사회생활에서도 위계가 있어서, 웃어른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니 경장애유(敬長愛幼)이다. 사회생활에서는 오로지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따져서, 연장자(年長者)를 공경하고 연하자(年下者)를 사랑한다. 연하자가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연장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또한 상급자(上級者)를 섬기고 하급자(下級者)를 지휘하는 것은 사존사비(事尊使卑)이다. 직급에 의한 질서는 부자자효(父子子孝)와 달라 상대적(相對的)일 뿐 아니라 쌍무적(雙務的)인 것이다.

사회의 위계질서에 대하여 맹자(孟子)는

첫째 조직사회에서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하고(조연막여작 朝延莫如爵), 둘째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나이를 최우선으로 하며(향당막여치 鄕黨莫如齒), 셋째 세상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어른이 되는 데에는 학문과 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위계를 정한다(보세장민 막여덕 輔世長民莫如德)고 하였으며,

동양의 고전인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는 나이로서 위계를 정하는 기준을

첫째 자기보다 1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를 섬기듯이 모시고(연장이배칙부사지 年長以倍則父事之), 둘째 자기보다 11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형님을 섬기듯이 하며(십년이장칙형사지 十年以長則兄事之), 셋째 자기보다 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선후배 사이로 지낸다(오년이장칙견수지 五年以場則肩隨之)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6년이상 10년까지는 나이가 많은 쪽이 친구로 지내자고 허락할 때에 비로소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며, 5년 이내에 드는 사이일 때에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당시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교우의 기준이며, 몇 개월 또는 1년을 가지고 따지는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 3. 재능에서의 위계와 질서

세대 차이와 연령 차이 그리고 직급 차이에 상관없이 위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각기 지닌 재능에 따르는 위계가 있으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잘하는 우월한 사람이 있고, 못하는 열등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優敎劣學). 이때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만 한다. 또 강한 체력의 조건이나 약한 체력의 조건도 있다(强保弱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 4. 생활에서의 위계와 질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앞서는 사람과 뒤지는 사람이 있고(先範後從),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다(多施寡勞). 이것이 같을 수는 없다. 만일 이것들이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다면 사회질서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앞서는 사람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뒤지는 사람은 본받아 따라야 한다. 많이 가진 사람은 베풀어야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볼 때 사회생활에서의 위계질서는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며, 나이 적은 사람은 사랑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은 공경하며, 직장에서는 직위가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볼 때, 첫째 연령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年高). 둘째 세상을 바르게 하는 지도자의 위계는 덕망과 학문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德高). 덕망이 높고 사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비록 나이가 적어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조직사회에서는 직위를 위계의 우선으로 해야 한다(爵高)는 것이 일반적인 위계라 할 것이다.

## 5. 문중에서의 위계질서

같은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문중(門中)에서는, 문중조직(門中組織) 내에서의 직책(職責)·항렬(行列)·연령(年齡) 등, 여타 사회조직과 다른 특수한 관계에서 오는 특이성(特異性)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중에 따라 위계는 물론, 호칭(呼稱)까지도 질서를 찾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불화(不和)의 씨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보학을 연구하는 관련자들이 주창하는 문중내에서의 위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까운 당내친(堂內親)의 경우에는 항고(行高 항렬)를 우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내친의 범위를 벗어나 문중으로서 화수(花樹)의 성격을 가진 조직사회(宗會 等)에서는 첫째 덕망(德望 직책)과 학문을 우선으로 하고(德高), 둘째 연령을 우선으로 하며(年高), 셋째 항렬을 우선시해야 한다(行高)는 의론(議論)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첫째 연령을 최우선으로 하고(年高), 둘째 덕망(직책)과 학문을 우선으로 하며(德高), 셋째 항렬을 우선시(行高)하는 순으로 위계가 정해지기도 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그리고 특히 종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종인(宗人)으로서, 위계에 따라 처신(處身)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항렬이 높은데 아니면 내가 문중에서 무슨 일을 보는 사람인데 하면서, 서로 상충(相衝)하여 언쟁(言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덕망이 높거나 행렬이 낮은 사람에게 '해라'를 한다거나, 덕망이 높다고 해서 나이가 많거나 행렬이 높은 사람에게 '해라'를 하는 경우, 또는 항렬이 높다고 해서 덕망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해라'를 하게 되면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감정(憾情)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문중(門中)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의 바람직한 위계질서(位階秩序)는, 상호간 대화(對話)에 있어서 특히 상충되는 경우에는「하오체」등을 사용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화합한다면 사회조직인으로서 또 문중의 구성원으로서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문경공파 주병 –

고전명구

# "졸(拙)" 에 대하여

졸(拙)이란 것은 덕(德)이다. 양졸(養拙)은 인(仁)의 일이고, 용졸(用拙)은 지(智)의 일이다.

拙者, 德也. 養拙, 仁之事. 用拙, 智之事.
졸자, 덕야. 양졸, 인지사. 용졸, 지지사.
–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청음집(淸陰集)』 38권 「용졸당기(用拙堂記)」

[해설]

민성휘(閔聖徽, 1582~1647)라는 분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충청도 가림(嘉林 지금의 임천(林川))에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그러고는 '용졸(用拙)'이라는 자신의 호를 따서 '용졸당(用拙堂)'이라고 당호(堂號)를 붙인 뒤 청음 선생에게 기문(記文)을 지어 줄 것을 청하였다.

졸(拙)은 보통 '옹졸하다' '둔하고 어리석다' '서툴다' '졸렬하다' 등의 뜻을 갖는 글자로, 뛰어나지 않고 별 볼일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지만 서툴고 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꾸민 데 없이 수수하며 앞으로 나서지 않고 더 조심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용졸'이라는 호는 '졸하게 살겠다.'는 겸손의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민성휘 부친의 호는 '양졸(養拙)'이고 형의 호는 '수졸(守拙)'이며 아우의 호는 '지졸(趾拙)'이라는 사실이다. 온 집안이 '졸(拙)'을 돌림자로 써서 호를 지은 셈이다. '趾'는 발이니 뒤따르겠다는 뜻. 아버지는 '졸'을 기르고 형은 '졸'을 지키며 나는 '졸'을 사용하고 아우는 '졸'을 따르겠다니 이쯤 되면 '졸'은 그냥 '졸'이 아닌 셈이다. 그래서 청음 선생도 기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리라.

"좋기도 하다. 공의 뜻이여! 무릇 사람들이 처세함에 있어서는 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졸이란 것은 덕이다. 졸함을 기르는 양졸(養拙)은 인(仁)의 일이고, 졸함을 쓰는 용졸(用拙)은 지(智)의 일이다. 아버지는 기르는 것[養]으로 시작하고, 아들은 쓰는 것[用]으로 이었으며, 형은 그것을 지키고[守] 동생은 그것을 따랐다[趾].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을 나는 멀리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근심한다.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나는 침묵하며, 저 사람이 수고로우면 나는 편안하다. 윗사람이 되어서는 편안하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순종한다. 그리하여 끝내는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이 없어지게 되니, 그렇게 한다면 한 세상을 교화시키는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말만 하려고 든다. 그래서 세상은 도리어 갈수록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기만 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拙'한 사람이 그야말로 세상을 떠받치는 토대며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조경구(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 보학용어 해설[35]

### ■ 분묘(墳墓) [II]

**2. 묘계(墓界)**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區域)으로 조선조(朝鮮朝)에서는 품계(品階)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1품은 사방(四方) 100보(步: 걸어가는 걸음),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 ·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사방 10보로 제한하였다.

**3. 묘표(墓表)**

표석(表石)이라고도 하며 망자(亡者: 죽은 사람)의 품계(品階)와 관직(官職) · 명호(名號)를 앞면에 새겨 세우며, 뒷면에는 자(字), 호(號), 휘(諱), 행적(行蹟),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 생년과 죽은 년월일), 비석(碑石: 표석)을 세운 연월일, 비문(碑文)을 찬(撰: 작문함)한 사람, 글씨를 쓴 사람 등을 명기(明記)하여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등을 말한다.

예(例) : 통정대부 이조참판 광주 이공 지묘(通政大夫吏曹參判廣州李公之墓)

예(例) : 백운 한양 조공 지묘(白雲漢陽趙公之墓)

관작(官爵)이 없으면 호(號) 만을 쓴다.

호(號)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學生: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 모공지묘(모공지묘)라 쓴다.

**4. 묘지(墓誌)**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 폭풍우, 산사태 등)으로 묘를 잃어 버릴것에 대비하여 돌(石) 등에 망인(죽은 사람)의 관 · 성 · 명(貫姓名)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 묘의 위치 자손의 이름 등을 간략하게 새겨 무덤 앞에 묻는 것을 말한다.

**5.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墓碑)란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비석(碑石)에 비문(碑文)을 새긴 것을 말하는데, 고인(故人: 죽은 사람)의 관 · 성 · 명(貫姓名)은 물론 그 경력이나 사적(事績) 등을 서술(敍述)함을 말한다.

**6. 묘갈(墓碣)**

묘비(墓碑)와 비슷하나 3품(三品) 이하 관리(官吏)들의 무덤 앞에 세우는 것으로 머리 부분에 별도의 관석(冠石: 머리돌)이 없이 비신(碑身: 비석을 새긴 비석의 주장되는 돌)만 머리 부분을 둥구스름 하게 만든 것으로 묘비(墓碑)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規模)가 작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진(晋)나라에서 비롯되었으며 당(唐)나라에서는 5품(五品) 이하의 관리들에게 세우도록 했다 한다.

**7.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관(高官)의 무덤 앞이나 또는 연고지(緣故地)의 길목에 세워 고인(故人)의 사적(事績)을 기리는 비석(碑石)을 말하며 대개는 무덤 동남(東南) 쪽에 위치(位置)한다.

신도(神道)라는 말은 망인(亡人)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道)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한(漢)나라에서 종이품(從二品) 이상의 관리들에게 한하여 세우도록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삼품(三品) 이상의 관직자(官職者) 무덤 앞에 세운 것으로 보이나 현존(現存)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와서는 이품(二品)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왕(王)의 신도비로서는 건원릉(健元陵)의 태조(太祖) 신도비와 홍릉(洪陵)의 고종황제(高宗皇帝) 신도비가 있으며 한편 공신(功臣)이나 석학(碩學) 등에 대하여는 왕명(王命)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하였다.

**8. 분묘(墳墓)의 치산(治山)에 대한 물명(物名)**

· 귀부(龜趺) : 거북모양의 비석을 받치고 있는 돌.
· 호석(護石) : 능묘(陵墓)의 주위를 둘러 쌓은 짐승(양, 호랑이 등) 모양의 돌.
· 묘(墓) : 시신(屍身)의 무덤.
· 곡장(曲墻) : 무덤 뒤에 눌러 쌓은 담장.
· 혼유석(魂遊石) : 제상(祭床)에 제수(祭需: 음식)를 차려놓았을 때 혼(魂)이 앉는 좌석(座席).
· 상석(床石) : 무덤앞에 제물(祭物)을 차려놓는 돌상.
· 향로석(香爐石) : 제상(祭床) 앞에 향로(香爐)를 얼려 놓는 돌.
· 북석 : 상석(床石)을 받쳐 놓은 둥근 돌.
· 묘갈(墓碣) : 고인(故人)의 약력(略歷) 등을 돌에 새겨 묘앞에 세운 비석(碑石)
· 망주석(望柱石) : 무덤 앞에 세워 놓은 두 개의 돌기둥.(무덤을 지키는 수호 신앙과 기념적인 기능을 가진 석조물이다)

· 문인석(文人石) : 무덤 앞에 세워 놓은 문관(文官) 형상(形像)의 돌.
· 무인석(武人石) : 무덤 앞에 세워 놓은 무관(武官) 형상(形像)의 돌.
· 비신(碑身) : 비문(碑文)을 새긴 비석의 돌.
· 두전(頭篆) : 비신의 위에 전자체(篆字體)로 새겨놓은 글.
· 가첨석(加檐石) : 빗돌 위에 지붕 모양으로 덮는 돌.
· 농대(壟臺) : 비신(碑身)을 받쳐 놓은 돌.
· 이수(螭首) : 비(碑)의 머리에 용이 서린 모양을 새긴 형상.
· 규액(圭額) : 비신의 위(머리부분)에 새겨놓은 문양(紋樣).

## 둔촌선생 명시선 67

奉寄京華故舊
**봉 기 경 화 고 구**

舊業漢陰州新居卽上流避人常抱病攜幼日
구 업 한 음 주 신 거 즉 상 류 피 인 상 포 병 휴 유 일

消憂已老風塵際還驚草木秋相思二三子西
소 우 이 로 풍 진 제 환 경 초 목 추 상 사 이 삼 자 서

望路悠悠
망 로 유 유

### 삼가 서울의 친구들에게 부치다

구업(舊業)[1] 은 한음(漢陰)의 물가였는데,
신거(新居)는 바로 그 상류(上流)라오.
사람을 피하는건 병이 들어서이니
어린이 이끌고 날마다 시름이나 달랜다오.
이미 풍진(風塵) 속으로 늙었는데
도리어 초목(草木)의 가을됨에 놀라는구려.
생각나는건 두서너 친구들인데
서쪽을 바라보니 길만 아득하구나.

1) 구업(舊業) : 전래(傳來)한 가업(家業)

## 이달의 明心寶鑑

| | |
|---|---|
| 神宗皇帝御製曰 | 신종황제어제왈 |
| 遠非道之財 | 원비도지재 |
| 戒過度之酒 | 계과도지주 |
| 居必擇隣 | 거필택린 |
| 交必擇友 | 교필택우 |
| 嫉妬勿起於心 | 질투물기어심 |
| 讒言勿宣於口 | 참언물선어구 |
| 骨肉貧者莫疎 | 골육빈자막소 |
| 他人富者莫厚 | 타인부자막후 |
| 克己以勤儉爲先 | 극기이근검위선 |
| 愛衆以謙和爲首 | 애중이겸화위수 |
| 常思已往之非 | 상사이왕지비 |
| 每念未來之咎 | 매념미래지구 |
| 若依朕之斯言 | 약의짐지사언 |
| 治國家而可久 | 치국가이가구 |

신종황제(신종황제)가 지은 글에 이르기를.
"도리에 어긋나는 재물을 멀리하고,
정도에 지나친 술을 경계하며,
사는 데는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사귐에는 반드시 벗을 가리며,
질투를 마음에 일으키지 말고
참소하는 말을 입에 내지 말며
형제간의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후하게 대하지 말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극복하는 데는 근면과 검소한 생활로써 첫째로 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겸손함과 화친으로써 첫째로 삼으며
항상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매양 앞날의 허물을 생각하라
만일 나의 이 말에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려서 오래갈 수 있다.

–성심편(省心篇) 중에서–

# 재경화수회 산악회 둔촌선조님 묘역 정화작업 실시

산악회(회장 시하)는 지난 6월28일(일) 회원 17명이 모여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둔촌 생신제를 앞두고 선조님 묘역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한사람 두사람씩 모인 회원들은 한낮 무더위를 피하여 작업을 마치기로 하고 성수 총무가 새벽부터 준비한 작업도구를 들고 서둘러 묘역에 올라 천오백여 평에 이르는 둔촌(휘 집), 사인공(휘 장손), 대사간공(휘 극규) 선조님 묘소와 진입로 주변에 대한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12시 반경 작업을 완료하고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반주를 곁 드린 음식과 반주를 나누며 단합과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화작업에 사인공파종회에서 10만원을 찬조해 주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한다.

–산악회 총무 성수 記–

##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 이름 | 금액(원) | 비고 | 이름 | 금액(원) | 비고 | 이름 | 금액(원) | 비고 |
|---|---|---|---|---|---|---|---|---|
| 6월 구독 및 찬조 | | | 이양재 | 10,000 | 서울시 은평구 | 이필주 | 10,000 | 경북 칠곡군 |
| 이종철 | 10,000 | 서울시 강동구 | 이상구 | 10,000 | 서울시 구로구 | 이형일 | 10,000 | 서울시 강서구 |
| 이영재 | 10,000 | 서울시 마포구 | 이남재 | 10,000 | 서울시 강동구 | 이길재 | 10,000 | 경기 성남시 |
| 이광식 | 10,000 | 인천시 서구 | 이종후 | 10,000 | 경기 동두천시 | 이용문 | 10,000 | 충남 서천군 |
| 이근석 | 10,000 | 인천시 계양구 | 이진수 | 10,000 | 경기 성남시 | 이충교 | 10,000 | 서울시 동대문구 |
| 이창근 | 10,000 | 광주시 서구 | 이종호 | 10,000 | 경기 성남시 | 이동수 | 20,000 | 서울시 강북구 |
| 이근섭 | 10,000 | 경기 남양주시 | 이종인 | 10,000 | 인천시 계양구 | 이영백 | 10,000 | 경기 이천시 |
| 이근욱 | 10,000 | 서울시 구로구 | 이창수 | 10,000 | 경기 군포시 | 이근택 | 10,000 | 경기 이천시 |
| 이근창 | 10,000 | 인천시 계양구 | 이광재 | 10,000 | 경기 파주시 | 이준웅 | 10,000 | 서울시 은평구 |
| 이근배 | 10,000 | 경기 하남시 | 이종석 | 10,000 | 강원도 원주시 | 이건규 | 10,000 | 서울시 광진구 |
| 이종호 | 10,000 | 부산시 사상구 | 이종복 | 10,000 | 서울시 마포구 | 이용운 | 10,000 | 부산시 수영구 |
| 이근옥 | 10,000 | 경기 가평군 | 이봉수 | 10,000 | 서울시 양천구 | 이진환 | 100,000 | 서울시 강남구 |
| 이근춘 | 10,000 | 경기 가평군 | 이범수 | 10,000 | 경기 이천시 | 이수만 | 10,000 | 경북 칠곡군 |
| 이성재 | 20,000 | 충북 청주시 | 이치구 | 10,000 | 충북 보은군 | 이용문 | 10,000 | 서울시 강남구 |
| 이명재 | 10,000 | 광주시 서구 | 이석구 | 10,000 | 경기 성남시 | 이철수 | 25,000 | 경기 하남시 |
| 이정재 | 20,000 | 용인축산농협 흥덕지점에서 입금하신 분 대종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구 | 10,000 | 인천시 서구 | 이종해 | 10,000 | 경기 이천시 |
| | | | 이문신 | 10,000 | 서울시 관악구 | 이성삼 | 10,000 | 부산시 남구 |
| 이병진 | 10,000 | 경기 파주시 | 이종열 | 10,000 | 강원도 횡성군 | 이성오 | 10,000 | 부산시 사하구 |
| 이종민 | 10,000 | 경기 성남시 | 이명호 | 10,000 | 충북 보은군 | 이현복 | 10,000 | 서울시 서초구 |
| 이일유(민재) | 10,000 | 경기 광주시 | 이종대 | 20,000 | 서울시 강남구 | 이석재 | 10,000 | 충남 청양군 |
| 이종락 | 10,000 | 경기 하남시 | 이관수 | 10,000 | 서울시 영등포구 | | | |

## <廣州이씨회보 구독료 납입 시 요망사항>

최근 광이회보 구독료 납입시 구독자 정보 오기재 및 미기재로 인해 정확한 구독료 관리에 상당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보 구독료 입금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계좌(기업, 농협) 입금시 : 반드시 구독자 성명과 지역명(시 · 군 · 구)을 기재
2. 지로 입금시 : 반드시 구독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명기.

※ 성명과 금액만 적으시면 정확한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 구독료 입금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종회(02-735-1720)로 연락 바랍니다.

예시)

###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59691-01-110

농협은행 : 301-0218-9163-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0年 7月 1日

<제361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玉 載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碩 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